

신혼부부 외면 받는 광주·전남 '행복주택'

광주 효천2지구 57%·목포 용해지구 24% 텅 비어 부부 자녀 양육공간 협소...市 '광주형' 추진 계획 마련

광주·전남 '행복주택'이 신혼부부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급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많은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 정책의 '누수 현상'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광주 효천2지구 내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240가구 가운데 137가구가 아무도 입주하지 않고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2016년 광주·전남 최초로 효천2지구 902가구를, 전남 목포 용해 2지구 450가구를 공급해 지난해 11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광주 효천2지구 내 신혼부부용(전용면적 36~44㎡) 행복주택의 경우 240가구 중 57%인 137가구가 비어 있는 실정이다. 36㎡ 규모로 공급된 192가구 중에는 70.8%인 136가구가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20% 이상 임대료가 저렴한데다, 주거 약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도 비어 있는 아파트가 남아둔다는 얘기다. 그나마 44㎡ 48가구는 1가구만 비었다. 효천2지구 내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행복주택(전용면적 26㎡·246가구)도 64가구(26.0%)가 공기로 남아있다.

전남도 비슷하다. 목포 용해 2지구에 공급된 신혼부부용(전용면적 36㎡) 행복주택

90가구 중 68가구만 불이 켜져 있으며 22가구(24.4%)는 3개월이 넘도록 비어 있다.

지역 주택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주거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한 채 일률적 크기로 공급한 데서 원인을 찾고 있다. 신혼부부들이라도 수도권에 비해 주택 구입 비용이 적게 드는 지방일수록 작은 평형대에 대한 수요가 적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 주택업계 사이에서는 올해도 광주 진월(460가구·3월)지구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전용면적 36㎡) 224가구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전년도(200가구)보다 많은 2279가구를 대학·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 무더기 외면상태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광주전남본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 정부에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사회초년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격 완화를 요구한 상태.

광주·전남 주택업계는 입주자격 완화 외에 지역·계층 특성에 맞도록 공급하는 주택 규모를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도 전용면적 45㎡이하 임대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입주, 자녀를 양육하기엔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형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용면적 40㎡ 이상 규모를 우선 배정하는 한편 ▲아이 돌봄을 위한 투룸형 공간 ▲공동육아 등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실(보육시설 등) 확보 ▲어린이 등학교를 위한 승·하차 공간 설치 계획 등을 아파트 건설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LH가 광주 효천2지구에 공급한 902가구 중 287가구가, 목포 용해 2지구에 공급한 450가구 중 119가구가 비어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료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세요”

에어서울, 인천~히로시마 12일까지 선착순 200매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가항공사(LCC) 에어서울이 일본행 무료 항공권 200매를 제공한다.

에어서울의 '공짜 항공권 프로모션'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12일까지 인천~히로시마 노선을 대상으로 총 200석의 항공운임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항공권 이벤트 참여방법은 에어 서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웹에 접속, 선착순으로 구매하면 된다. 소비자는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만 지불하면 된다. 여행 기간은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왕복 총액 4만7400원)이며, 항공운임이 0원인 만큼 위탁 수하물 제한이 있다. 위탁 수하물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한전, 전국 전기공학 성적 우수 학생에 장학금 9억원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은 지난 27일 본사에서 전국 전기공학 분야 성적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전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주역인 전기공학도에 장학금 지원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사랑받는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번 수여식까지 총 699명에게 45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기공학 전공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74개 대학교 및 10개 대학원의 학생 109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약 9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농어촌자녀, 다자녀, 장애우, 한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과 사회공헌활동, 성적 등 종합적 평가로 장학생을 선발해 성



2018년도 전기공학 장학증서 수여 및 멘토링 체결식

적우수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등록금과 학습보조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장학생과 한전 직원간의 멘토링 협약을 통해 한전 직원들이 장학생의 멘토가 되어 대학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

하고 지속적인 쌍방향 의사소통에 대한 민국의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음식업서 밀려나는 중년층... 지난해 7400명 줄었다

혼술·혼밥 풍조 적응 못한 사업자 늘어...내수 회복 악영향 우려

경기 불황에 소비 트렌드 변화까지 겹치면서 대표 서민 자영업종인 음식점업에서 밀려나는 중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음식점업 사업자는 72만9700명(1년 전(72만2800명)보다 6900명(0.9%) 증가했다. 사업자 연령대로 보면 30대 이하와 60대 위주로 대부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비중이 큰 40~50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사업자는 9만4000명에서 10만3700명으로 10.3% 늘어나 가장 증가 폭이 컸다. 30세 이하 사업자도 3만9000명에서 4만1200명으로 5.8% 늘었다.

반면 40대 사업자는 19만9800명에서 19만4600명으로 약 5200명(-2.6%) 줄었고 50대 사업자는 24만42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2200명(-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40~50대 사업자만 약 7400명 줄어든 셈이다.

음식점업 사업자 중 50대 사업자 비중은 33%로 가장 크고 40대 사업자(27%)가 두 번째로 많다.

국세청이 사업자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40대 음식점 사업자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851명, 3천720명 줄어든 반면 50대 사업자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508명, 2305명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음식업 경기 약화의 중심에는 지난해 뚜렷한 경기 회복세에도 기를 펴지 못한 소비가 있다. 지난해 소비는 전년보다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술·혼밥 소비 풍조에 적응하지 못한 탓에 중년층 음식점 사업자의 퇴출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40~50대 음식점업 사업자 감소는 40대 가구의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한 점과 맞물려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시행

오늘부터 104곳 영업개시...정보포털서 확인 가능

2월을 기해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업체에 쫓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자로 종료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에 따라 3월 1일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2일 이후에는 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P2P대출 이용자 투자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P2P대출업체 홈페이지에 표시된 등록번호와 대표자, 소재지 등이 통합조회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버거킹 일부 메뉴 가격 100원 인상

버거킹이 2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다. 버거킹은 1일 버거와 사이드메뉴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해 2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와퍼, 치즈와퍼, 불고기 와퍼 등 버거 10종과 탠더링, 코코넛쉬림프 등 사이드메뉴 2종이다. 인상 폭은 모두 100원이고, 인상은 제품에 따라 1.0~2.6%다.

인상 제품에 국한한 평균 인상은 총 1.6%이고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한 평균 인상은 약 0.3%다.

대표 제품인 와퍼와 불고기 와퍼의 가격은 단품 기준 56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른다. 세트 구매 가격은 77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말 버거 12종 등에 대해 가격을 올렸다. 이후 KFC, 모스버거도 가격을 올렸고, 맥도날드는 지난해 15일부터 버거 등 27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버거&치킨 전문업체 맘스터치는 지난달 22일부터 버거류 18종의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 /연합뉴스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워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 063-835-4771